25일 Market Index

코스피 6083.86 (+114.22)
코스닥 1165.25 (+0.25)
금리(국고채 3년) 3.124 (-0.034)
환율(원·달러) 1432.75 (-9.75)

metro® 경제

대산 1호 프로젝트 첫 발
여수·울산 등
산단재편 탄력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8천피 향해 점프!

코스피 6천시대 개막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 등 주력 산업 대기업 실적 호조에 李 정부 지배구조 개선 등 성과

코스피가 6083.86에 마감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코스피 6000 돌파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돌파했다. 1956년 한국 주식 시장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70년, 1983년 코스피를 처음 산출 한 지 43년 만에 오른 고지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 등 주력 산업 대기업의 실적 호조와 이재명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고 팔리는‘코리아 프리미엄’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평가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상승 폭을 키우며 장중 사상 최고치인 6144.71까지 올랐다. 오후 조정을 거쳐 전 거래일 대비 1.91% 오른 6083.86으로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6000억원, 1조2000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를 받쳤다. 외국인은 1조5000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관련기사 13면〉

불과 9개월 전만 해도 국내 증시는 암울했다. 비상계엄 사태, 미국 관세 부과 정책 발표 등 영향으로 코스피는 지난해 4월 9일 2293.7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난해 6월 3000을 회복하며 반등 발판을 마련했다. 반도체 업황 부활,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맞물리며 지난해 10월 27일 사상 첫 4000을 넘어섰다. 기세를 탄 코스피는 올 들어 두달이 채 안돼 5000과 6000을 잇달아 넘어서는 대기록을 세웠다. 올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44.37%로 주요 20개국(G20) 중 1위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한 반도체, 자동차, 방산, 조선 산업의 우량 대기업이 6000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207조원으로 불어나 전세계 시총 순위 14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는 730조원으로 시총 덩치가 커졌다. 반도체 덕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5024조3950억원)으로 불어났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반도체 호황과 1, 2, 3차 상법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6000 돌파 요인으로 꼽았다. 블룸버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외국인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본시장 구조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불공정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활성화를 추진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이익 눈 높이도 빠르게 높아졌다. 맥쿼리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각각 301조원, 272조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키움증권은 코스피 영업이익이 600조원대 초중반까지 상향될 수 있다고 봤다.

상승 피로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승세를 과열이 아닌 ‘레벨업 국면’으로 평가한다.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8000으로 높인 노무라금융투자는 “범용 메모리 및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슈퍼사이클 등으로 올해와 내년 예상 주당순이익(EPS)이 전년 대비 각각 129%, 25% 급증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구조적 개선 등이 담보된다면 코스피지수는 8000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가 상승세가 실물 경제 성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 車보험 손해율 평균 92% 웃돌아 3년 만에 최고치

서울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2025년 기준)이 92%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또 전국 외제차의 52.6%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는 전국 외제차의 30.45%가, 서울에는 22.15%가 등록돼 있다. 서울·경기 보험시장은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생명·장기손해보험은 서울의 가입률이 조정되는 가운데서도 유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 반면, 자동차보험은 서울 평균 손해율이 90%를 넘어서며 손해보험사의 수익성 부담을 키우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관련기사 11~17면〉

25일 메트로신문이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서울·경기 보험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지역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92.88%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수도권 보험시장의 핵심 변수는 ‘가입 확대’보다 ‘계약 유지’와 ‘원가부담’으로 이동했다.

본지, ‘서울·경기 보험지표’ 분석 외제차 53% 서울·경기에 등록 수도권 변수 계약유지·원가부담

생명·장기손해보험의 가입률(2024년 기준)은 전국 77.1%, 서울 76.8%, 경기 75.8%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년(78.6%)보다 1.8%포인트(p) 하락했고, 경기는 전년(75.4%)보다 0.4%p 상승해 같은 수도권에서도 흐름이 갈렸다.

다만 종목별로 보면 공통점이 더 선명하다. 서울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65.3%에서 60.7%로 4.6%p 낮아진 반면 장기손해보험 가입률은 58.3%에서 58.7%로 0.4%p 올랐다. 경기 역시 생명보험은 57.0%에서 56.9%로 소폭 낮아졌지만 장기손해보험은 64.4%에서 65.5%로 1.1%p 상승했다. 전체 가입률 등락과 별개로 ‘생보 약화·장기손보 강화’ 흐름이 공통으로 나타난 셈이다.

유지율에서는 서울·경기의 상대적 강점이 확인됐다. 2024년 말 기준 생명보험 13회차 유지율은 서울 87.8%, 경기 87.5%, 전국 87.4%였고, 61회차는 서울 47.4%, 경기 46.4%, 전국 45.7%였다. 서울은 가입률 조정 국면에서도 장기 회차 유지율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서울의 손해율 상승이 더 직접적인 경고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지역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92.88%로 전년(87.65%)보다 5.23%p 상승했고, 전국 평균(87.58%)보다도 5.30%p 높았다. 서울 평균 손해율이 90%를 넘긴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김주형·안재선 기자 gh471@

‘갤럭시 S26’ 공개… AI 활용 쉽고 사생활도 보호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6

‘완성도 최적화’에 가격인상 상쇄 ‘울트라’ 전작대비 NPU 39% 향상 어두운 환경속 선명한 촬영 지원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태문 DX부문 사장이 3세대 AI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갤럭시S26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은 AI 활용 방식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입힌 것이 특징이다. 출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완성도가 높고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격을 둘러싼 우려 역시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를 개최하고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다. 신제품은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S26+’, ‘갤럭시 S26’ 총 3개의 모델로 구성됐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갤럭시 전용 프로세서인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탑재해 전작 대비 NPU 성능은 39%, CPU와 GPU 성능은 각각 최대 19%, 24% 향상돼 역대 가장 강력한 하드웨어 성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사용자의 맥락과 의도를 파악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맞춤형 AI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나우 넛지’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나우 넛지는 사용자의 상황에 맞춘 개인화된 제안을 팝업 아이콘으로 제시하는 기능이다.

보다 직관적인 AI 경험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에이전트도 함께 탑재됐다. ‘빅스비’는 더욱 강력해진 대화형 디바이스 에이전트로 업그레이드됐다. 사용자는 빅스비와의 자연어 기반 대화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 설정 등을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 원하는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작 대비 상향된 하드웨어와 카메라도 눈에 띈다. 특히 갤럭시 S26 울트라는 측면에서 화면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새롭게 적용해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화면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는 넓은 시야각과 좁은 시야각 픽셀을 모두 활용해 기존과 동일한 화면을 제공하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좁은 시야각 픽셀만 작동시켜 화면을 정면 사용자에게만 보이도록 제어한다.

카메라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갤럭시 S26울트라’는 2억 화소 광각과 5000만 화소, 광학 줌 수준의 10배 줌 망원 카메라에 전작 대비 더욱 넓어진 조리개를 탑재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촬영을 지원한다. /샌프란시스코(미국)=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與 ‘尹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위 설치… 일각 “‘공취모’ 해산하는게 맞아”
▲추미애 “집값 더 오를 거란 기대 반토막…李대통령 정책, 시장에 전달된 결과” /사진 뉴시스
▲주진우 “곰팡이 든 코로나 백신 접종은 범죄… 정은경 왜 은폐했나”
▲정세균 “법사위, 합의처리 관행 무시…숫자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곤란”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조국 “저와 정청래·김어준이 반명? 분열의 정치는 자멸의 길”